

“보현행 실천이 화엄삼매”

화엄경 ①

〈화엄경〉 속의 어떤 가르침이 선불교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일까?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논리적 측면과 철학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수행적 측면을 살펴보기로 하자.

화엄의 수행론은 무엇인가? 우선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적어보자. 〈화엄경〉에는 수많은 삼매가 제시된다. 삼매야말로 선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것 아닐까. 또 각종 각양의 보살행이 강조된다. 대승경전 중에 그 어떤 경전도 보살행을 철저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화엄경〉만큼 곡진(曲盡)한 경전도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적어도 열반적은 반복되는 강도의 수사학(修辭學)을 생각해 보라. 특히, 그 극적 진법을 우리는 보현보살의 행원 속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이리하여 앞에서 제기한 질문은 다시 '선과 보현행의 관계'에 대한 물음으로 바뀌게 된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보현행 역시 성기와 맥이 이어져 있다는 사실이다. 〈화엄경〉을 대표하는 이들 두 사상은 다시 해인삼매와 화엄삼매로 치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후대 중국의 주석가들에 의해서 해인삼매는 총정(總定)으로 평가받아 왔는데, 동시에 그것은 결과로서 얻어지는 선정(果定)

글쓴이



김호성 (동국대 교수)

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화엄경〉에서 '해인삼매'가 설해지는 맥락 중의 하나가 '성기품'이라는 접은 수행적 측면에서 논의되는 해인삼매가 사실은 성기와 잇대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성기품'의 한 계승은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모



42

보리가 무심히 나타난 게 해인삼매 해인속엔 선정·지혜 함께 들어있어

든 법이 허공과 같아서 / 아(我)도 아니며 무아(無我)도 아님을 요달하여 모든 법을 등각(等覺)하는 것이다. / 비유하면 모든 대대에 모든 중생들의 모습이 두루 나타나므로 / 일체인(一切體)이라 말하는 것이다. / 시방세계 중의 모든 중생류는 / 무상보리의 바다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삼매는 정혜등지(定慧等持)라고 볼 수 있다. 중국 선종의 육조(六祖)가 말한 것처럼, 선은 바로 정과 혜가 하나로 이루어져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점에서, 모든 삼매가 바로 선의 세계 아님이 없지만, 해인삼매 속에서 우리는 선적 취의(趣意)를 확연히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국 화엄종의 제4조 징관(澄觀)이 해인삼매를 "보리가 무심(無心)히 돈현(頓

現)함"으로 이해하는 것도 그것은 특성을 파악했기 때문이라.

이같은 해인삼매에 대하여, 그의 사상이 선사상과 연결된다고 평가되는 의상(義相)은 〈법계도기〉에서 2번에 걸쳐서 언급한다. 첫째는 왜 법계도는 그림에 의지하는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서 논해진다. 그것은 질문에 대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 역시 이 해인삼매에서 우려난 것임을 보이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이는 해인삼매가 곧 성기임을 말하는 것이다. 둘째는 〈법계도〉의 운문 부분인 법성계에서 "해인삼매 중에 들어갈 수 있어야 부사의한 행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부분은 바로 이타행(利他行)을 설하는 맥락이다. 이를 종합하면, 해인삼매는 성기로서 화엄삼매의 보현행으로 나아가는 전제, 내지 출발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다.

화엄의 이타행, 즉 보현행(보현행)에서는 화엄삼매로 말하고 있는 바 그 내용에 있어서 저 심우도의 열반적 그림 입전수수(入纏垂手)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깨침을 얻은 선사가 다시 저자거러로 들어가 중생을 교화한다는 심우도의 그림은 일반의 선입견과는 달리 선이 독선(獨善)의 길에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중생의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는 출발임을 말해준다. 경허(鏡虛)와 같은 선사들의 무애행을 보현행의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도 그것은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성기 = 해인삼매" → "보현행 = 화엄삼매"의 구조는 곧 "돈오 → 만행(漸修)"의 구조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같은 화엄사상의 선적 취의와 실천지향성을 '화엄선(華嚴禪)'이라 부른다. 미래불교의 명운은 선과 화엄의 조화, 즉 화엄선에 달려있는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태국 내니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현대인의 불법 ②

불교는 우리를 혼자 서게 해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며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눈을 뜨게 해 준다. 불교만큼 능력이야말로 모든 선한 일의 뿌리임을 거듭 강조하고, 정신적 무력과 게으름을 단호하게 경계하는 종교적 가르침도 없을 것이다. 부처님은 "해탈에 이르도록 방일하지 말고 힘써 정진하라"고 가르쳤다. 귀의한 사람이 거듭 깨우치게 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노력에만 의지해야 할 것이며, 그 어디에도 자신이 저지른 악행의 과보로부터 벗어나게 도와줄 존재가 따로 없다는 사실이다. "악업을 짓는 것도 자신이고 청정함을 행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야. 청정함이나 불순함이나 자신에게 달린 것이다. 자신 이외에 그 누구도 자신의 구세주가 될 수 없느니라."

불교는 누구든 자신의 선행과 불선행의 책임을 져야하며 오직 자신만이 자기 운명의 모양새를 만들어 갈 수 있을 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불자라면 필연적으로 자신의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리하여 자기 확신에 이르게 된다. 사람이 신이나 어떤 가상의 힘에 의존하게 되면 자기 능력에 대한 믿음과 책임감이 약화되기 마련이고 그 반대로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는 사람이 확고하고 강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은 자명하다.

부처님은 모름지기 전통이나 권위에 끌려 밀려서는 안되며, 누구라도 자기완성과 해탈을 하는 사람은 독단적 교리나 신앙에 휘둘리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라

신이나 독단적 교리는 정신발전 막아

지 말고 자기 자신의 이해력과 사고력에만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우리를 마음 속에 자기신뢰와 자기확신을 더욱 개발해나가는 데 필요한 덕목을 제시해 준다.

우리에게 스스로 판단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이러한 가르침은 참으로 유익한 영향을 끼칠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권위나, 경전이 나, 제의나, 전통을 맹목적으로 믿으라고 강요하며, 스스로의 점검을 용납하지 않는 교리는 필시 사람의 정신을 침체상태로 몰아갈 게 뻔하다. 정신적 발전은 사고의 자유를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그러나 권위에 대한 맹목적 믿음이 판을 치는 곳에서는 어떤 정신적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사고의 자유는 정신적인 활력과 발전을 가져오지만 독단적 견해는 정체를 물고온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독단적 믿음은 편협한 마음과 짙은 이혼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 수 있다. 독단적 태도를 취했다하면 권위가 편협함이 뒤따르게 되어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이처럼 편협한 아량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무엇보다도 모든 존재를 감싸안는 보편적인 자비심이다. 남에게 인정과 사랑을 베푸는 이 자비심이야말로 불교가 모든 도덕적 사회적 발전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는 것이다. 실제로 참다운 불교교가의 분위기는 모든 존재를 감싸안는 자비심으로 충만해 있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교명을 무척대고 따라서가 아니라,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아래로는 한낱 지렁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똑같은 생존의 조건과 법칙을 따르게 되어있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존재하듯이 그들도 존재한다. 그들이 존재하듯이 나도 존재한다." 이렇듯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와 자신을 동등하게 여겨야하며, 산 것은 그 어느 것도 죽이거나 해쳐서는 안된다.

불교에서만큼 보편적인 자비심과 무사무욕의 사랑을 선명하게 정의하고 있는 가르침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자비심은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이 고통받지 않고, 슬픔을 모르고, 행복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주 만물에 대한 사랑의 찬가'인 (자비경)은 불교교가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지위가 높거나 낮거나 남녀노소 할것없이 한 목소리로 암송해야 할 마음의 양식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과학산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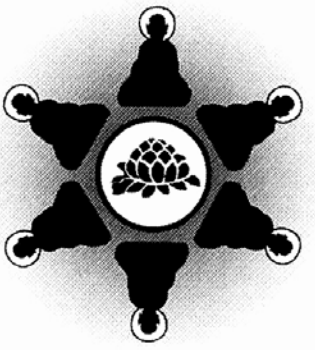
통일장과 불교

통일장과 관련된 이론을 살펴보면 표면적인 수준에서는 달라보이는 것들(입자와 힘, 서로 다른 입자들)이 그 보다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는 동일한 장(場)의 다른 표현이라는 통합성을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즉, 어떤 시간과 거리 영역에서는 다양성을 보이던 것들이 그 보다 더 고에너지 영역(다른 말로 하면 더 심층적 '시공간')에서는 다양성이 통일되어 하나 혹은 몇 개의 기본 요소로 설명이 가능해진다. 고에너지 영역에서는 다양성은 사라지고 통일성이 나타난다. 반대로 에너지가 낮아지면 통일성을 보이던 것들이 다양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불교에서는 타종교와는 달리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한다. 그래서 수많은 방편을 사용할 수 있다. 달을 가르키는 손을 보지 말고 달을 보라고 하지 않던가. 이는 달을 가르키는 수많은 방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달을 보는 것이지 방법이나 이름에 사로잡혀 달을 보지 못하는 우를 경계하는 말이다. 물론 여기에서

달이란 자신 안에 있는 본성 혹은 주인공(主人空)을 말하는 것으로 달을 가리키는 모든 방법론은 주인공의 체험을 향할 일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주의자들이 날뛰는 다른 종교에 비해 더 많은 유연성을 당연히 가지게 되는 것이다.

과 입자로 구별되는 다양성은 더 깊고 섬세한 수준, 다른 말로 하면 보다 근본(통일장)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역시 통일된다. 이는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 본래 자취는 다른 종교에 비해 더 많은 심은 쉬게 되고 나와 남, 다른 생명, 무생명을 구별하지 않는



모든 것은 근본에서 나왔다

통일장 다양한 물질 뿌리는 근본장

불교 자성佛이 세상만물 만들어

하나의 근본 장에서 모든 것들이 나오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루어졌다는 통일장 이론의 가설은 아직 물리학적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모든 삶의 근본은 자성, 혹은 주인공(空)이라는 견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풀자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근본에서 나왔다는 것이다. 또한 물리학 발전의 성공적인 한 장을 이른 양자장 이론에 의해 보통 수준에서는 다른 입자로, 혹은 힘

경지에 들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통일장 이론에서 볼 수 있는 예를 들어 전자와 중성미자가 서로 변환 가능한 입자사이의 변환, 힘과 입자 사이의 기능의 변환과 같은 자유로운 근본인 통일장에 가까울수록 더 많이 일어난다. 불교 수행에서도 근본에 가까울수록 걸림이 없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 이렇게 응할 수도 있고 저렇게 응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요점은 근본에 이르는 것

이다. 일상적인 에너지 단위에서 통합성이 나타나고 더 에너지가 높은 심층적 상태에서 통합성이 나타나는 것은 통합성을 매개해주는 가상입자들의 질량이 크고 이로 인해 이 입자들을 발생시키는 데 많은 양의 에너지가 들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인식의 깊이에서는 통합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인식에서는 다양성이 보이며 그 다양성의 뿌리인 근본자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일상적인 세계를 보면 규칙성 보다는 다양성을 발견하기 쉬운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물리학자들

은 더 섬세한 원자와 입자 수준에서는 단지 4가지 기본적인 상호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즉, 중력적 상호작용, 방사능의 원인이 약한 상호 작용, 전자기적 상호 작용, 강한 쿼크 결합의 상호 작용이다. 이 4가지 상호 작용들 각각은 자신과 연관된 아교 입자(그루온)를 가진다. 매우 높은 에너지 수준에서 이 4가지 상호 작용은 서로간의 다른 점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세기도 모두 같아진다. 아직 완전한 이론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않지만 4가지 상호작용들이 실제로 단지 하나뿐인 통일장의 다른 나타남에 불과하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이제는 집에서든 온 가족이 손쉽게 범죄를!

가정법회

모든 불자들을 위한 가정법회 안내서

삼귀의·반야심경 봉독·5계 수지문 낭독·찬불가·성구 및 해설·발원문·사후서원



신행활동에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삶의 지침이 되고 교훈이 될만한 내용을 아함부경전에서 가려뽑은 성구와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해설, 축원이나 감사는 물론 각종 행사나 절기 등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작성된 발원문, 온 가족이 날마다 요일을 정해놓고 혹은 특별한 날에 가정법회를 진행한다면 훌륭한 불자가정은 물론 삶의 지혜와 교훈, 삶의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학중 편저/신국판/350쪽/값 10,000원

중국과 대만에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킨 선학총서 첫 번째 권

불교와 유학

불교와 유교, 동아시아 사상계의 가장 큰 충돌, 그리고 중국화된 불교와 불교화된 유교!



불교와 유학은 장구한 역사 속에서 상호간의 투쟁, 배척, 흡수, 융합 등의 과정을 겪어 왔는데, 이 책은 바로 이 양자의 관계를 정확한 관점과 명쾌한 논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와 중국에서 발전한 유학이 갖는 각각의 특징, 불교의 중국화 과정에 유학이 미친 영향, 역으로 중국의 유학에 불교가 끼친 영향, 그리고 이러한 영향들의 결과 및 의의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賴永海 저·김진우 역/신국판/363쪽/값 12,000원

알기쉬운

한문해석법

현대 한문해석법의 완성과 반야심경에 대한 최초의 문법적 분석



이 책은 한문의 기초부터 한시는 물론 허사에 이르기까지 한문해석을 위한 한문 문장의 구조와 문법을 총정리한 초보자를 위한 한문입문서이다. 특히 반야심경을 현대의 한문해석법에 문법적으로 적용하여 국내 최초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장분석과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 돋보인다.

심계동 저/신국판/383쪽/값 12,000원

初發心自警文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게 꾸민

초심자를 위한 안내서

번역 및 자해난은 물론 원문에 토를 달고, 원문 해석의 순서와 방점을 붙여 누구나 쉽게 읽고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해공 편역/신국판/136쪽/값 4,500원

1999년도

불교서적 종합목록

현재 유통되고 있는 불교서적을 총망라한 국내 유일의 종합정보지.

전 서적에 대한 내용별 분류를 시도하였으며 전체목록 색인란과 출판사별 색인란을 두어 목록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다.

가까운 불교서점에 가지거나 운주사로 연락주시면 (우편발송비 2,000원 동봉)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